

66일 대장정...광주비엔날레 내일 폐막



광주비엔날레 폐막을 이틀 앞둔 5일 단체 관람객들이 비엔날레전시장 앞 마당에 앉아 얘기 나누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이젠 광주를 위한 비엔날레를

“광주비엔날레 창설 15년이 넘었는데 도대체 광주에 남긴 게 뭐가 있습니까?”

제8회 광주비엔날레가 7일 66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린다. 하지만 이번 행사에서도 광주는 철저히 소외됐다. 지역 작가 발굴, 문화를 통해 광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등 실질적인 결실은 거두지 못하고 일부 미술 전문가들의 ‘집안 잔치’로 끝났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광주비엔날레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해 볼 때가 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광주비엔날레에는 ‘광주’가 없다=이번 비엔날레 개막식이 열린 지난 9월3일, 국내외 미술 전문가와 작가·인문인 200여명이 초대패 전시장을 둘러봤다. 반면, 이 지역 작가와 미술 관계자들은 눈에 띄지 않았다. 아예 초청을 받지 못했거나 광주비엔날레에 대한 관심이 전혀

지역미술계 소외...신인 발굴 실패 ‘광주’ 메시지 담긴 정체성 찾아야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광주비엔날레가 일부 미술인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지역 미술계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전체 134명의 참여작가 중 지역 작가는 임남진씨 등 3명과 젊은 작가 4명이 공동 출품한 ‘인어그룹’ 뿐이었다. 이마저도 광주비엔날레를 통해 국내의 스타작가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만들진 못했다.

또 출품작 대부분이 과거에 세계 각국에서 이미 전시됐던 구작(舊作)이기 때문에 신선한 충격도 주지 못했다. 세계 미술계에 새로운 미적 담론을 던지고, 현대 미술을 이끌 스타 작가를 발굴해야 할 비엔날레가 묵은 작품을 모아 놓은 만물

상으로 전락한 꼴이다.

◇지역을 위해 고민할 때=부산은 부산시립미술관, 요트경기장, 광안리해수욕장, 지역 갤러리 26곳 등 도심 곳곳에서 2010 부산비엔날레(9월11일~11월20일)를 열고 있다. 또 갤러리페스티벌, 성인·청소년미술강좌,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시민 참여프로그램을 만들어 매회 80만~130만명의 관람객을 유치하고 있다.

지난해 열린 베니스비엔날레가 메인 전시공간에 지역 대표산업인 유리특별전을 마련한 것도 시사한 바가 크다. 광주의 경우 지역 대표 산업인 LED와 빛을 활용한 작가들이 많기에 이들의 작품을 따로 모아

선보이면, 지역 경제를 흥보하는 부가적인 성과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강진청자축제와 영광원전프로젝트 관계자들이 광주비엔날레 전시장에 셔틀버스를 보내 지역축제와 비엔날레를 연계한 시도도 눈여겨 봐야할 점이다. 이 행사를 통해 강진을 찾은 서울 관람객들이 백련사 템플스테이에 참여하는 등 전남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광주비엔날레가 만나 새로운 문화 상품을 만들어냈다.

전남대 미술학과 장석원(제5회 광주비엔날레 국내예술감독) 교수는 “광주비엔날레의 외형만 키우다 보니 이제는 ‘광주’라는 본질이 사라져 우리 행사가 아닌 것 같다”며 “광주만의 메시지와 성격을 찾고, 이것을 세계적으로 키워나가면서 광주비엔날레의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국회의원 11명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청목회 입법로비 수사 확대...최인기·강기정·유선호 의원 포함

청원경찰법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5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이하 청목회)에서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 11명의 지역구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현역 국회의원 11명의 사무실과 자택을 일제히 압수수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여의도 정가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2면>

이날 압수수색은 민주당 최규식의 원,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 등 1000만원 이상 후원금을 받거나 청원경찰법 개정안 처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의원들의 지역구 사무실과 자택에서 이뤄졌다.

압수수색 대상자는 이인기·권경석·조진형·신지호·유정현(이상 한나

라당)의원, 최규식·최인기·강기정·조경태·유선호(이상 민주당)의원,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등이다. 해당 의원 가운데 최규식 의원이 받은 후원금 액수가 5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해당 사무실마다 수사관 3~5명을 보내 30분에서 2시간여 동안 회계담당자 컴퓨터에 저장된 후원금 내역과 후원자 명단 등 컴퓨터 파일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서류, 회계장부 등을 분석해 의원 측에서 청목회가 보낸 후원금의 대가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규명할 방침이다.

자료 분석이 끝나면 이르면 다음주 압수수색 대상자는 이인기·권경석·조진형·신지호·유정현(이상 한나

범위를 전방위로 확산할 계획이다.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이인기 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렇게 갑자기 압수수색하는 것은 (검찰이) 너무 지나친다고 생각한다”며 수사 방식에 불만을 토로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증거가 명백해 압수수색할 명분이 없다”면서 “이것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정치를 말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원경찰의 이익단체인 청목회는 급여를 올리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집중적으로 전달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임동욱기자 tuim@연합뉴스

지하수 수위 매년 10cm씩 낮아진다

광주 지표 아래 3.57m 전남 5.56m...수온 상승하고 수질도 악화

전국 320곳 변동실태

도시화로 광주 지하수 수위가 1년 새 22cm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가 5일 광주·전남 등 전국 320개 지점에 설치한 국가지하수 관측망의 지하수 수위 및 수질 변동 실태를 분석한 ‘지하수 관측 연보’에 따르면 광주 지하수는 평균 지표 아래 3.57m에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은 평균 지표 아래 5.56m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의 경우 지난 2008년(3.35m)에 견줘 22cm 낮아진 반면, 전남 수위는 전년(5.66m)보다 10cm 높아졌다. 전국 지하수는 평균 6.19m에 존재하며 지난해에 비해 약 10cm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지하수 수위가 낮아진 데는 도시화로 인해 지표가 콘크리트 등으로 덮이면서 빗물 등이 땅속에 스며들지 못하는 불투수층이 늘어났

고 지하수가 과다 사용된 것도 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질검사 결과, 일부 지역의 경우 산성도 지표인 pH 농도와 질산성 질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에서는 곡성군 목사동면

관측점에 대한 지난해 상반기 조사 결과, pH 농도가 8.8로 기준치(5.8~8.5)를 넘어섰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전국 관측점의 지하수 수온도 평균 섭씨 14.6도로 작년보다 0.1도 상승했다고 밝혔다. /김진기기자 dok2000@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56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당신만을 위한 비즈니스 호텔

·민트스페이스 - 해물지리탕, 추어탕, 육개장
·특선해물뷔페 - 35,000

특별언약

- 객실: 전 객실 50% 할인
- 웨딩홀: 웨딩패키지 할인 숙박권 증정
- 돌잔치: 숙박권증정 및 패키지 할인

힐튼호텔 | 각종 세미나 | 대·중·소연회장 완비

이덕근관광호텔
예약문의 ☎(062) 227-8500
www.hiddinkhotel.com

우암학원 창학 60주년

출발 2010, 제2의 창학연

남부대학교 | 전남과대학

“ENJOY THE FOOD LIFE”

베네치아와 함께 하세요!!

▶바베큐 폭립

▶바닷가재 안심스테이크

스테이크의 환상 짝궁! 와인

▶메로스테이크

▶안심스테이크

저희 베네치아 월드컵점은 세계 각국의 다양한
향 좋고, 맛 좋은 고급 와인을 저렴한 가격에 즐기실 수 있으며
각종 샐러드바와 다양한 스테이크, 해산물요리와 함께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즐거운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점: 062-675-6636
모아골프연습장 1층

·본점 062-227-9363 ·첨단지점 062-971-7654
·롯데점 062-232-7370 ·목포점 061-283-2720
·신세계점 062-360-1981